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굴드판 전집 16권 1862, 영문)

오웬 · 2장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가

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2장, 굴드판 『존 오웬 전집』 16권(1862). 본문 중간에 312쪽 머리말이 보인다(OCR의 "SI 2"를 312로 읽음). 장 전체의 쪽 범위는 확인 필요.

🧭 흐름 한눈에

오웬은 먼저 질문을 세운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마지막 사람보다 수백 년 뒤에 사는 우리가, 이 책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그럴듯한 논거에 기댄 '의견'이 아니라 '신적 믿음'으로 받으라고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근거는 단 하나여야 한다. 오웬의 답은 이렇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유일한 토대이고, 그 권위는 교회나 전통의 보증 없이 성경 자신이 드러낸다. 이어서 그는 “성경은 그 자체로는 권위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증언이 필요하다”는 반론을 두 가지 논증으로 무너뜨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세 길(지으신 일, 본성의 빛, 말씀)을 살핀다. 낮은 두 길도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드러낸다면, 그보다 높여진 말씀은 더욱 그렇다는 '일반 귀납'으로 장을 맺는다.

📜 절별 정리

📜 1. 핵심 질문: 오래 뒤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오웬은 1장에서 놓은 토대, 곧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기록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 위에서 질문을 세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마지막 사람보다 여러 세대 뒤에 산다. 우리 자신도 계시를 직접 받지 않았다. 손에 있는 것은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하는' 책 한 권, 혹은 여러 권뿐이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 베드로가 말한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물음이다. 오웬은 이 확신이 일부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목적에 걸쳐” 필요하다고 말한다.

1. 질문: 이 책이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어떻게 아나
2. 우리는 직접 계시를 받지 않은 세대다
3. 대상은 기록된 말씀 '전체'다
4. 기원이 정해지면 권위도 따라 정해진다
5. 반대편 가능성: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 **베드로후서 1:16**
> 성경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질문의 반대 축으로 세운다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찾는 것은 이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 전체가 스스로 내세우는 기원, 곧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 2. 성경은 신적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다른 책처럼 받지 말라고 요구하신다. 이 요구를 어기면 영원한 진노가 따른다. 다른 책의 저자를 믿을 때 우리는 개연성 높은 논거들로 굳은 '의견'을 만든다. 그 의견은 반대 논리가 나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의 토대이자 형식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이 곧 “왜 당신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오웬은 형식적 근거는 하나뿐이라고 못 박는다. 성경이

1. 성경은 '의견'이 아닌 '신적 믿음'으로 받는다
2. 이를 어기면 영원한 진노가 따른다고 경고한다
3. 믿음의 형식적 근거는 오직 하나다
4. 외적 논거는 반론을 막는 데 유용하다
5. 그러나 믿음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 **데살로니가후서 1:7-10**
>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로 '신적 믿음으로 받을 의무'의 무게를 보여 준다
>
> 7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형식적 근거는 하나뿐이다. 다른 논거들은 반론을 물리치는 데 쓸모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토대에는 참여할 수 없다."

📜 3. 하나님의 권위가 토대다 (오웬의 명제)

오웬은 자기 답을 한 명제로 내놓는다. 우리말 문장으로 나누면 이렇다. 하나님은 만물의 지극히 높으신 주이시다. 그분은 처음이자 유일한 절대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그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 권위는 오직 성경 자체 안에서, 성경 자체로 입증된다. 이 권위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토대다. 또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할 믿음과 순종으로 마음과 양심을 성경에 복종시키는 유일한 토대이기도 하다. 근거는

그들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말씀은 그 자체의 증거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통이나 교회나 바깥의 무엇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과 위엄으로” 스스로를 내놓는다. 그것만으로도 성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줄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적 증거를 이미 담고 있다.

1. 믿음의 유일한 토대는 하나님의 권위다
2. 그 권위는 성경 자체로 입증된다
3. 선지자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은 스스로 증거한다
4. 교회·전통의 보탬은 필요 없다
5. 권위도 성경에서, 그 입증도 성경에서

> **히브리서 1:1**
> 하나님이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 곧 성경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근거
>
>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 **에베소서 2:20**
> 우리 믿음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곧 그들을 통해 주신 말씀 위에 세워진다
>
>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분의 음성은 기록자들에게 그 자체의 증거를 동반했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 자체의 증거를 동반한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는 그 자체로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신에게서 나오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입증하는 것도 성경 자신이다.”

📜 4. 그 권위가 알려지는 길 (1): 사람은 성경에 권위를 줄 수 없다

오웬은 먼저 '권위'가 무슨 뜻인지 정한다. 성경의 권위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힘이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물음은 “성경은 하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힘을 어디서 얻는가”라는 물음이 된다. 그 힘이 성경 바깥에서 온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오웬은 말한다. 사람이 성경에 권위를 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되물어 보면 드러난다. 왜 다른 책이 아니라 하필 이 책에 권위를 주는가. 그들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권위를 '주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가진 모든 권위의 근거다. 그리고 그 권위는 그들이 '허가장'을 내주기 전부터 이미 성경에 있다.

1. 권위란 하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힘이다
2. 그 힘은 성경 바깥에서 올 수 없다
3. “왜 이 책인가?”를 물으면 모순이 드러난다
4. 답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니까”이다
5. 권위는 사람의 인정보다 앞선다

> **요한복음 17:17**
>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은 누구의 인정 이전에 이미 진리이고 권위다
>
>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람이 성경에 권위를 준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왜 하필 이 책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 5. 그 권위가 알려지는 길 (2): "그 자체로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니다"라는 반론

어떤 이들은 한발 물러서서 말한다. 성경은 그 자체로, 그리고 신적 기원 덕분에 권위가 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 권위가 우리에게 닿아 우리가 알고 복종하려면, 그 일을 맡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증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웬은 두 가지로 답한다.

첫째 답: 같은 논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려면 어떤 수단을 쓰셔야 한다. 그런데 그 수단이 바깥의 증언 없이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아예 자신을 계시하실 수 없게 된다. 오웬은 라틴어 문장 하나를 비꼬듯 인용한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테르툴리아누스의 『호교론』에서 온 말로 알려져 있으나 오웬은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오웬은 이렇게 꼬집는다. 이 원리대로라면 하나님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먼저 교회의 추천서를 받아 오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심하고 거절해도 된다는 말이 된다.

둘째 답: 권위는 본질상 '관계'다. 창조주의 권위는 피조물이 그분과 맺은 관계에서 나온다. 왕의 권위는 백성에 대한 것이다. 백성 없는 왕은 말로만 왕이다. 오웬은 이를 “스토아식 왕”이라 부른다. 목사의 권위도 양 떼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 대해' 권위가 없다면 '그 자체로도' 권위가 없다.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할 권리는 불에서 열을 떼어 낼 수 없듯 권위와 떼어 낼 수 없다. 물론 권리상으로는 권위가 있는데 실제로는 순종을 강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강제할 힘이 없다고 권위가 줄지는 않는다. 하나님도 자기 능력의 크심을 발휘해 사람들을 억지로 순종시키지 않으신다고 해서 권위를 잃지 않으신다. 더구나 불순종이 악한 까닭은 명령하는 이의 권위에 있다. 그러니 반론대로라면 결론이 이렇게 된다. 사람이 증언을 붙여 주기 전에는 성경의 명령을 어겨도 죄가 아니다. 오웬은 “믿을 사람은 믿으라지”(라틴어 Credat Apella) 하고 일축한다.

1. 반론: 성경 권위가 '우리에게' 닿으려면 다른 증언이 필요하다
2. 답1: 그러면 하나님도 자신을 계시할 수 없다
3. 답2: 권위는 관계이므로 '그 자체로'와 '우리에게'를 나눌 수 없다
4. 강제력이 없다고 권위가 줄지 않는다
5. 반론대로면 증언 전의 불순종은 죄가 아니다

오웬은 장절 없이 헬라어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인용한다. 하나님이 이 힘으로 강제하지 않으셔도 권위는 그대로라는 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고보서 2:10-11

율법 하나를 어겨도 명령하신 그분을 거스른 것이다. 불순종의 악은 명령하는 이의 권위에서 나온다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어떤 이들에게 법이 아닌 것은 애초에 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증언을 붙여 주기 전에는 성경의 명령을 어겨도 죄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믿을 사람은 믿으라지.”

📜 6.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세 길

오웬은 명제의 뜻을 다시 정리한다. 성경은 모든 권위를 그 저자에게서 받는다. 그 자체로도,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리고 그런 저자에게서 났다는 것을 다른 도움 없이 스스로 밝힌다. 이를 세 단계로 확증하겠다고 예고한다. 일반 귀납, 성경의 증언, 성경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관한 논증이다. 이 장에서는 첫 단계인 일반 귀납만 다루고, 나머지 둘은 다음으로 넘긴다. 귀납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정도를 달리하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세 길이다. 첫째는 창조와 섭리의 일이다. 하늘과 땅, 계절과 비,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심이 하나님을 증언한다. 오웬은 이 구절들을 다른 논고에서 풀겠다고 한다. 편집자 각주는 그 논고를 『테올로구메나』로 밝힌다.

하나님은 지워지지 않는 빛을 사람 마음에 심으셨다. 그 빛에는 선악에 대한 도덕적 본능이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자기 판단이 뒤를 받친다. 셋째는 말씀이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그러면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 셋이 속임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1. 확증 순서: 귀납 → 성경의 증언 → 논증
2. 이 장은 '일반 귀납'만 다룬다
3. 첫째 길: 창조와 섭리의 일
4. 둘째 길: 본성의 빛과 양심
5. 셋째 길: 말씀

> **시편 145:10**
>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분을 찬송한다. 창조가 하나님을 드러낸다
>
>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 **시편 19:1-4**
> 하늘이 말 없는 말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
>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 **욥기 37-39장**
>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하나하나 들어 자신을 드러내신다

> **사도행전 14:15-17**
> 비와 결실기를 주심으로 이방 민족에게도 증거를 남기셨다
>
> 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방임하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7:24-27

창조와 민족들의 시기·경계를 정하심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한다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로마서 1:18-20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것을 통해 분명히 보인다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2:14-15

율법 없는 이방인의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고 양심이 증언한다. 본성의 빛의 근거다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지울 수 없는 빛을 사람 마음에 심으시고, 선악을 아는 본능과 그분의 심판을 의식하는 자기 판단을 거기에 더하셨다.”

📜 7. 일과 양심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의 인장이 찍혀 있다. 그래서 누구든 보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이 그분의 이름과 권위로 가르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성적 피조물에게 이것을 확신시키는 데 전통도, 기적도, 어떤 교회의 권위도 필요 없다. 그 일들은 자기 권위를 지니고 다닌다. 필요한 것은 그 일들이 이성적 피조물의 생각 앞에 놓이는 것뿐이다. 본성 속 하나님의 음성인 양심도 같다. 양심이 하나님에게서 말한다는 것을 증인을 세워 설득할 필요는 없다.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의·능력·전지·거룩을 증언할 때도 그렇다. 영원히 마땅한 도덕적 순종을 요구할 때도 그렇다. 양심은 다른 증거나 추론 없이 자기가 주는 것만으로 자기 저자를 드러낸다. 하나님이 이성적 존재의 본성에 새겨 넣으신 '공통 관념'은 바깥의 도움 없이 자기 신적 기원을 변론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일에는 신성의 인장이 찍혀 있다
2. 전통·기적·교회 권위가 없어도 알아본다
3. 존재 자체로 누구의 것인지 말한다
4. 양심도 증인 없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5. 본성에 새긴 공통 관념은 스스로 변론한다

> **로마서 2:15**
>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다시 써서, 양심이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근거로 삼는다
>
>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로써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선언한다.”

“이성적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일이 그분의 것임을 확신시키는 데 전통도, 기적도, 어떤 교회의 권위도 필요 없다.”

📜 8. 하물며 말씀이랴: 시편 138편과 19편, 그리고 원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고백한다. 오웬은 여기서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수단으로 읽는다. 그 모든 수단이 말씀을 섬기도록 말씀 아래 놓여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낮고 어두운 계시 수단인 자연과 양심은 바깥 도움 없이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로 높이신 말씀은 다른 증언이 와서 거들 때까지 죽은 듯 어둡게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거룩·능력·은혜·진리를 온 창조보다 더 밝게 새기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웬은 자연적 하나님 지식을 부정한 사람들이 진리에 해를 끼쳤다고 본다. 오웬은 이름을 대지 않으나, 당시 소키누스파가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웬은 덧붙인다. 여기에 더해 말씀이 스스로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신론의 홍수를 막는 둑이 터진다.

귀납의 결론은 이렇다. 창조는 하나님을 너무 분명히 드러낸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안의 세상', '바퀴 안의 바퀴'인 교회의 토대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말씀에 자신의 선하심·능력·지혜·거룩·인류 사랑·진실·신실하심의 표지를 새기셨다. 섭리로 말씀이 사람들 위에 펼쳐지는 곳마다, 말씀은 다른 증언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한다. 그러므로 그 자체의 증거를 보고도 말씀을 거절하면 피할 수 없는 정죄가 따른다. 시편 19편이 바로 이 비교를 한다. 앞부분은 피조물에게 '소리'와 '줄'을 돌린다. 뒷부분은 말씀에 해와 하늘 같은 빛·능력·견고함·영원함을 돌리되, 그보다 말할 수 없이 높인다. 오웬은 이것을 하나의 원리로 세운다. 하나님이 자신을

실제로 가르치든지, 아니면 '계시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막든지 한다. 이 원리를 말씀에 대해 성경의 증언과 논증으로 더 확증하는 일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1. 하나님은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
2. 낮은 계시가 스스로 증언한다면 말씀은 더욱 그렇다
3. 말씀의 자증을 부정하면 무신론의 둑이 터진다
4. 성령이 말씀에 하나님의 표지를 새기셨다
5. 원리: 하나님의 계시엔 그분 권위의 인장이 있다

> **시편 138:2**
>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말씀이 다른 모든 계시 수단 위에 있다는 논증의 중심
>
>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 **에스겔 1:16**
> 오웬은 장절 없이 히브리어로 “바퀴 안의 바퀴”를 인용한다. 세상 안에 세우신 교회를 가리키는 그림이다
>
>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 **시편 19:3-4**
> 피조물에게 '소리'와 '줄'을 돌리는 부분. 창조계시 쪽 비교 항이다
>
>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 **시편 19:7-11**
> 말씀에 완전함·확실함·밝게 함·영원함을 돌리며 창조보다 높인다. 말씀계시 쪽 비교 항이다

[7]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로마서 1:20

창조가 사람을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말씀 거절에 정죄가 따른다는 결론의 짝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해 보라. 무신론의 홍수를 막던 둑이 얼마나 빨리 터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정하신 것이면 무엇이든, 그분에게서 났음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그분 권위의 인장이 찍혀 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형식적 근거(formal reason)

어떤 것을 믿게 하는 단 하나의 '바로 그 이유'. 다른 도움이 되는 이유들과 구별된다.

신적 믿음

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할 권리. 오웬은 이것을 본질상 관계라고 본다.

자증(self
evidencing) — 성경이 바깥의 보증 없이 그 자체의 빛과 성질로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드러낸다는 것.

기록자(penmen)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쓰신 사람들, 곧 선지자와 사도.

섭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붙들고 다스리시며 일을 이끄시는 것.

본성의 빛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심어 두신, 하나님과 선악에 대한 타고난 앎.

양심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자기 행동을 고발하거나 변호하는 마음의 판단.

공통 관념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새겨진 하나님과 그 권위에 대한 기본 생각. 헬라 철학에서 빌린 말이다.

권리상 / 사실상(라틴어 de jure / de facto)
마땅히 가진 권리와 실제로 행사하는 힘의 구분. 힘이 없어도 권리는 그대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을 믿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다.
- 그 권위는 성경 자신에게서 오고, 우리에게 입증되는 것도 성경 자신으로 된다. 교회나 전통의 보증은 토대가 아니다.
- 권위는 관계이므로 “그 자체로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 창조와 양심도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보다 높여진 말씀은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말씀을 그 자체의 증거로 받지 않으면 핑계할 수 없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2편 · 성경은 스스로 빛을 낸다 · 자증성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